

보도 일시	2022. 9. 19.(월) 배포시점	배포 일시	2022. 9. 19.(월)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	책임자	과장 최선경 (02-2110-1510)
	이용자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 이기훈 (02-2110-1511)

##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, 메타 측 부사장 면담

### - 안전한 누리소통망(SNS) 이용,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플랫폼 이용자보호 방안 논의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‘방통위’) 안형환 부위원장은 9월 19일(월) 오후, 방한한 앤디 오코넬(Andy O’connell) 메타 플랫폼\*(Meta Platforms, Inc.)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.

\* 세계 최대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 (Facebook)과 함께 인스타그램 (Instagram), 왓츠앱 (Whatsapp), 오쿨러스 (Oculus) 등의 서비스를 제공

이 자리를 통해, 안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, 불법정보 유통 방지,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등 신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방통위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면서 메타 측의 협조를 요청하였고, 오코넬 부사장은 자사의 누리소통망(SNS) 및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.

특히, 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,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의 책임을 독려하기 위하여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안 부위원장은 메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“글로벌 기업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,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·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더욱 협조해 줄 것” 을 요청하였다. 끝.